

있어 그 밑으로 흐르는溪流를 隔하여 높은 山峰과 相對하였으며 北쪽은 南떨어지와 溪流를 相距하여 部落 民家에 接하고 있으며 다만 西쪽이 열리어 若干의 傾斜를 이룬 平地가 繼續되고 있는데 이 곳에 瓦片, 土器片 磁器片 등이 散在하여 伽藍址로 推測되는 바 여기 寺址 地形에 對한 石塔의 位置가 考察되어야 하겠다. 石塔속에는 金銀부처 寶物이 들어있다는 말이 傳해오고 있다는 데 이미 寶物 盜取者들의 行爲로 推測되는 基壇部의 破壞과 初層屋身 北面이 열리어 塔體가 西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니 今後 保護策이 講究되어야 하겠다.

實測值 總高約 七 m

- 基壇中石……地上高 六〇 cm 幅 一七五 cm
- 基壇甲石……幅 一九五 cm 厚 一五 cm 副椽 八 cm
- 初層塔身屋身……高 六五 cm 幅 一三〇 cm
- 屋蓋……高 九五 cm 幅 一九五 cm
- 二層塔身屋身……高 三〇 cm 幅 一一〇 cm
- 屋蓋……高 七〇 cm 幅 一六〇 c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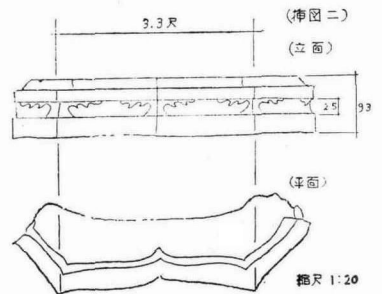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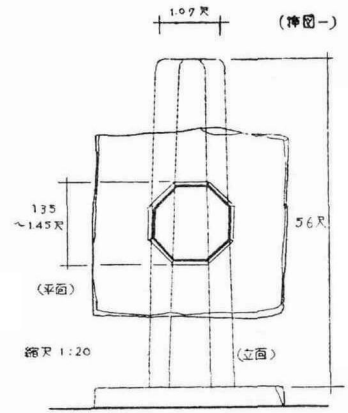
慶州 月城附近的 石物數點

崔 容 完

月城 西北便에, 지금은 雞林中學校로 建物は 南門中門大成殿 明倫堂를 가추어 兩便에 廳廊이 있는 文廟가 正南向하여 東北隅에는 尊敬閣인 듯한 礎石의 配列이 있다. 校庭에 石塔材 石燈材 등이 散在했으며 길이 約 五尺半의 石橋樑이 눈을 끌었고 建物들의 基壇部가 變形이 많으나 新羅寺刹址인 듯한 느낌이 많다.

西側의 土牆뒤로 住居地群이 있어 文廟에 따르는 住宅들이 있던 듯하다. 이 곳에도 數個의 石水槽와 石塔材 石燈材를 볼 수 있었으나 特히 住所校

里洞 六九番地 崔植氏宅의 蓮花槽가 볼 만하였다. 길이 五·一尺 幅 三·一尺에 높이 一·八尺 깊이 一尺이며 변두리를 〇·一尺 내지 〇·一五尺의 自由로운 幅으로 花葉形을 이루어 左右對稱이 아니며 크고 작은 十葉花로 造成되었다. 세 곳에 流水口가 있어 물이 가득 차드라도 花葉形의 輪廓은 물에 잠기지 않는다. 石水槽라기보다 石蓮池라 해야 할 듯, 主人崔植는 周



圍가 遙石宮터이며 그遺物이라는 傳說을 이야기한다(寫眞)。

月城內의 東便에 崇信殿이 있어 南側出入口 兩便에 一雙의 石柱가 서 있다. 羅代의 遺物이라 確證할 筈 없으나 造成手法이 新羅石造物에 나 타나는 特性과 共通되어 注目할만하였다. 편편한 四方形 礎石上에 五·六尺 高의 八角柱이다. 아래가 넓고 위가 좁은 민흘림으로 上端을 둘레 를 굴러서 좁혔으며 편편한 上面에 다른 部材가 놓이도록 되었다(插圖 一)。

月城南方 南川 건너서 발가운데 倒壞되어 形體를 알아볼 수 없는 一 雙의 石塔이 있고 발흙에 많은 瓦片과 器片이 섞였다. 附近에 八角佛座 臺의 一部分이 발두렁에 었었다. 全體모양이 八葉蓮花形이었던 것으로 略 八尺幅의 큰 座臺石이었음이 實測에 依하여 推定된다. 各立면에 眼 象刻을 했으며 美麗한 手法과 平面的으로 아름다운 曲線은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듯싶다(插圖 二)。

資 料

全 榮 來

南原에서 甕棺發見

南原郡 阿英面을 踏査途中 土器가 副葬되어 있는(土器는 一部露出) 高塚墳墓와 함께 甕棺 一部가 發見되어는 바 內壺는 口緣部만 남기고 全失되었는데 口徑二六·七cm이다. 外壺에는 높이 一·三cm의 손잡 이가 復原値는 長이 約 八〇cm이다. 內外壺 모두 肩部에 鋸齒文이 있 고 두께는 六—八mm이다.

考古美術 뉴스

◎文化財委 第一分委 (二次)

三月五日 午後 文管局長室에서 개최되었는 바 出席은 金庠基 金斗鍾 金載 元 李相伯 李弘植 金元龍 黃壽永委員 鄭局長 崔泳喜 金周泰專門委員 討議는 다음과 같다.

一、海印寺藏經板庫…… 예산관계로 二個年計劃으로 하며 今年度에는 北庫를 完了

한다. 總監督

官으로 文化財

管理局長을 삼

고 마로 學術

擔當의 監督

官을 둔다.

一、洗兵館담당장

및 一柱門建

立……今年補

修計劃公般에

걸쳐서 緩急

을 가려야 하

므로 此件은

保留키로 한

다.

一、六四年度文化

財補修計劃:

: 國寶 寶物

